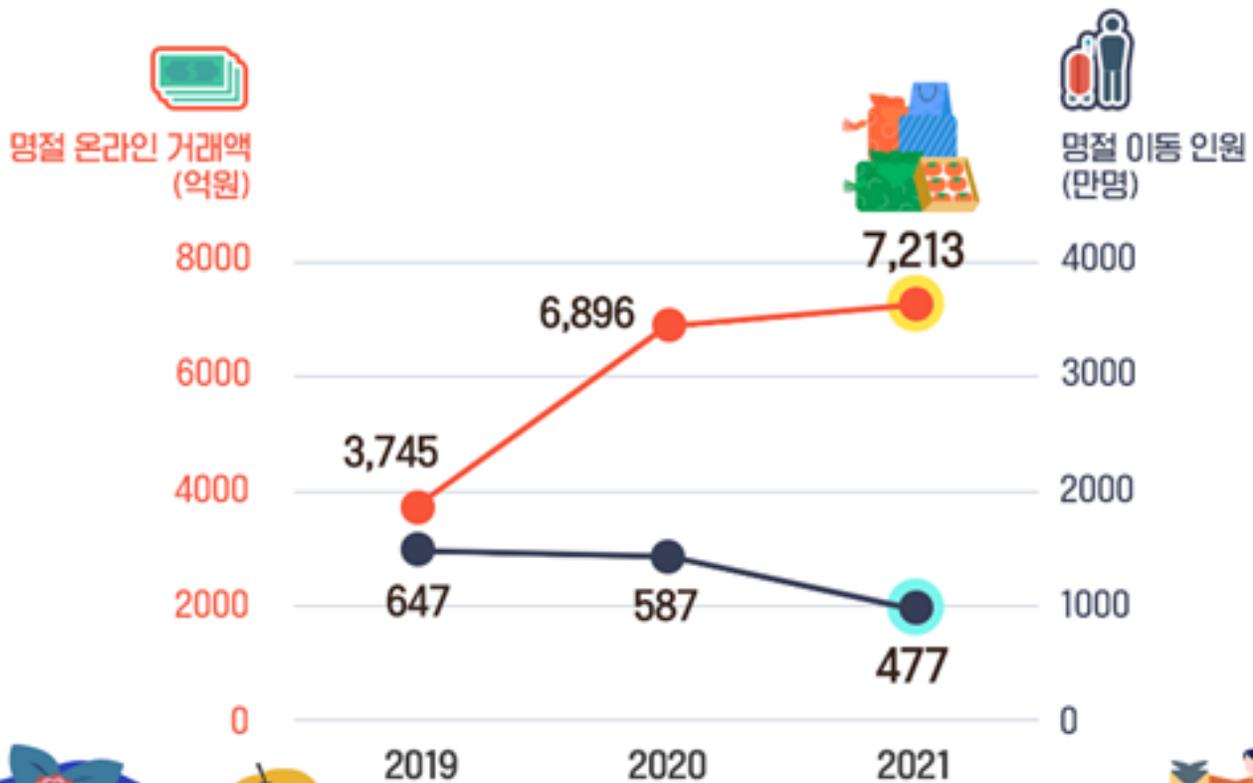


농정원, 코로나19 전후 명절 선물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

- 코로나도 못 꺾은 농산물 인기... 명절 선물 1등은 '과일' -

— 코로나19가 바꾼 명절 트렌드 —

고향 방문 ↓ 비대면 명절 선물 ↑



분석기간: 2019.01.01~2022.06.30
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(이하 농정원, 원장 이종순)은 코로나19 전후 ‘명절 선물’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.

이번 분석은 코로나19의 엔데믹(풍토병화) 이후 첫 명절(추석)을 맞아 코로나19가 한국인의 명절 선물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,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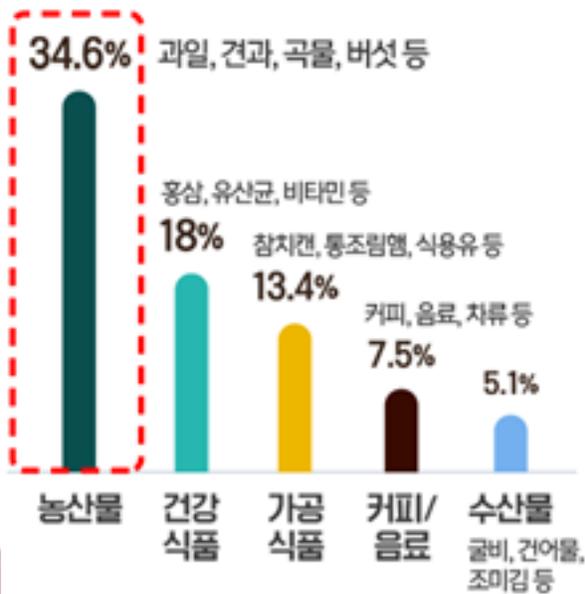
지 온라인 뉴스, 커뮤니티, 블로그, 카페, 트위터,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된 227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.

분석 결과, 최근 4년간 명절 선물 트렌드 키워드는 ‘비대면’, ‘프리미엄’, ‘다양성’이었다.

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명절 선물은 온라인으로 구

가장 많이 찾는 선물은 역시 "농산물" 코로나19 영향, 방역 용품 등 선물의 다양화

명절 선물 주요 품목



코로나19 이후 증가 품목



분석기간: 2019.01.01~2022.06.30

매하고,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.

이는 이동자제 권고 등 방역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직접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.

* 명절(설·추석)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(만 명) : ('19) 647 → ('20) 587 → ('21) 477 → ('22.설) 432(출처: 한국교통연구원, 설·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)

* 연도별 추석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액(억 원): ('19) 3,745 → ('20) 6,896 → ('21) 7,213(출처: 통계청, 온라인쇼핑동향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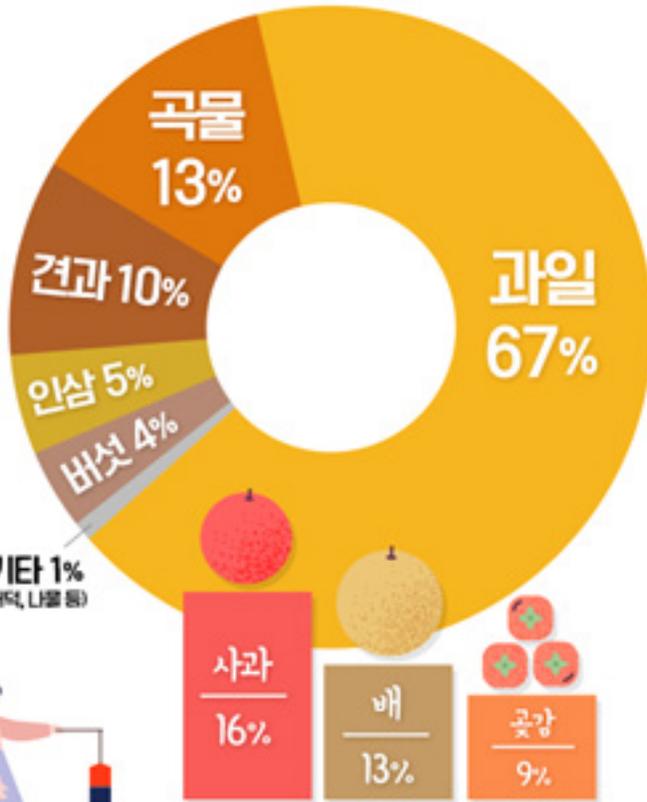
청, 온라인쇼핑동향조사)

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자 선물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.

최근에는 300만 원 한우세트,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 와인세트 등 기존 프리미엄 선물을 뛰어넘는 초(超)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.

* 언론 주요 보도내용 비중(%) : 프리미엄 선물 강세(34) > 명절 선물 다양화(30) > 청탁금지법 한시적 기준완화(21)

'실용적인' 제수용 과일 & '성의 있는' 이색과일 선호도 상승



온라인 쇼핑을 통한 프리미엄 과일 선물 인기



▲한라봉(7%)



▲샤인머스켓(6%)



▲망고(5%)



▲레드향(4%)

〉 친환경 포장재(10) 〉 정부 성수품 관리 등(5)

* 명절 선물 고려 요인 정보량(Top5, 4개년 누적) : (1위) 가격(213,195), (2위) 건강(196,066), (3위) 프리미엄(152,362), (4위) 배송(131,786), 패키지(124,558)

코로나19는 명절 선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했다. 그간 선물용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방역용품이 새로운 관심 품목으로 등장하고,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제품, 주류 등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품목, 비대면으로 선물할 수 있는 기프티콘 등의 언급량이 증가했다.

* 코로나19 이후 정보량 증가 품목(%) : 방역·위생(184.9), 가전(60.7), 주류(36.4), 기프티콘(27.5), 커피·음료(19.6), 농산물(14.7)

코로나19 여파에도 전통적 명절 선물인 '농산물'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, 이 가운데 '과일'은 농산물 언급량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특히 사과, 배, 곶감, 대추 등 제수용 국산과일이 상위권을 형성했으며, 한라봉, 포도(거봉, 샤인머스켓 등), 망고 등 이색과일 또한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언급되었다.

올 추석은 국산 농산물로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하세요!



이는 제사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 측면과 가격대가 높은 이색과일을 선물하여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

* 명절 선물 품목별 언급량(%) : 농산물(34.6) > 건강식품(18.0) > 가공식품(13.4) > 커피·음료(7.5)

* 명절 선물 주요 농산물 언급량(%) : 과일(67) > 곡물(13) > 견과(10) > 인삼(5)

* 선물용 과일 주요 품목 : (1위) 사과, (2위) 배, (3위) 귤감, (4위) 한라봉, (5위) 포도

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농정원이 매월 발행

하는 농업·농촌 이슈 트렌드 보고서 'FATI(Farm Trend&Issue)' 3호에 담았으며, 농정원 누리집(www.epis.or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“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한 달여 빨라 농업인 여러분과 유통업체 관계자분들이 벌써 한가위 준비에 분주하다.”며 “농정원도 우리 농수산물식품 모음집*(마음이음마켓)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 선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[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]